

4. IMF 경제 단신

○ 「3월 경제 위기설」 일단 진정

- 2월까지 나들던 '3월 경제 위기설' 혹은 '제2의 換亂설'은 일단 진정되고 있음
- 2월 중순까지 주가, 환율, 금리 등 금융시장의 3대 지표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면서 '3월 경제 위기설'을 촉발시킨 바 있음
- 그러나 국내 기업의 현지 부채가 당초 우려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, 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, 원자재 수입LC 개설 재개 및 확대 등의 시현으로 '3월 위기설'은 일단 진정되고 있음
- 그러나 '제2 경제 위기설'의 근거가 되었던 제반 상황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
- 아직도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,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, 인도네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,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의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, 4~5월경에 제2의 경제 위기가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
○ 단기 외채의 중장기 전환 협상 순조롭게 진행

- 우리나라 외환 위기의 최대 고비였던 단기 외채의 중장기 외채로의 전환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
- 뉴욕 협상 이후 개별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이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미국, 일본 등 5개국에서 진행되어, 대상 외채 210억 달러중 204억 달러를 중장기 외채로 전환하기로 함
- 또한 3월 9일까지 군소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을 진행하여 중장기 전환 비율을 더욱 높일 계획임
- 이에 따라 총 대상 외채 240억 달러의 90% 이상을 중장기 외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이는 당초 예상했던 80%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임
- 단기 연장된 단기 외채의 정확한 규모는 3월 12일 도착 예정인 채권금융기관의 단기 연장 동의서를 집계해야 알 수 있음

○ 예상되는 주요 이슈

- 단기 연장 엔화 외채에 고금리 지불
 - 일본 채권은행 단과의 협상에서 엔화 외채에 대해 엔리보(0.9375%)에 단기별로 2.25~2.75%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고금리 지불의 부담이 발생함
-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위한 주거래 은행 선정
 - 97년말 현재 총여신 2,500억 원 이상의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주거래 은행을 4월 1일까지 선정하여야 함
- 국제수지 편제 개편
 - IMF의 95년판 편제 기준에 따라 98년부터 국제수지 구성을 경상수지, 자본수지, 준비자산 증감 내역으로 변경하고, 민간기업의 대외 자본거래도 계상하게 됨

(곽 용 선 yskwak@hri.co.kr ☎724-4058)